

정인화 가톨릭 환경연대 대표

93년 「가톨릭 환경연구소」 설립 「아나바다」 등 다양한 환경운동

지난해 개봉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94년도 일본에서 선보이며 일본 열도를 강타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매니아를 확보해 놓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히야오'의 작품으로 '월령공주'와 함께 이미 많은 팬들이 불법(?) 비디오를 통해 한번쯤은 본 만화영화다. '나우시카'나 '월령공주'를 통해 미야자키감독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신의 목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공격하면 자연 역시 인간을 공격해 결국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화영화 속의 월령공주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지구의 자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월령공주'가 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환경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한 지금 지역사회를 통해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 - '가톨릭 환경연대 (대표 정인화 신부)'를 만나본다.

학생들 체험교육, 장바구니 보급도

■ 가톨릭 환경연대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가톨릭 환경연대는 70~80년대 개발위주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국토가 피폐해지고 산업화·도시화가 심화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던(1992년 브라질의 리우회의 이후) 1993년, 몇몇 사제와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가톨릭환경연구소'를 설립하여 환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지역과 교회에서 환경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고, '아나바다'운동으로 각 성당에서 재활용 붐을 일으켰으며, 아나바다 장터를 진행하고, 학생대상 체험환경교육, 신자대상 장바구니 보급, 생명·환경·문화운동 워크숍 등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999년 4월,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민운동의 맥락에 맞게 '가톨릭 환경연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 상처가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보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과 때로는 파수꾼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톨릭 환경연대의 운영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요.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아래에, 분기별로 30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전반과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환경연대의 조직운영과 지역환경 현안들을 논의하고 집행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되는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하는 기획실, 학생·주부 등 일반인 대상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 환경연대사업과 활동 전반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조직화하는 회원사업실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연대 산하에는 일반인을 모집하여 매월 생태기행을 하는 '녹색기행', 인터넷 전자공간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그린넷',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진영상동아리 '빛그린' 그리고 순수민간 환경운동을 사선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매월 생태기행, 그린넷도 운영

■ 지역중심 활동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 지난해에는 시민들과 더불어 인천 전체산(계양산~청량산)을 조사하여 식생과 녹지축 단절실태를 확인했고, 시민·학생들과 함께하는 녹지축중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녹지보전과 숲살리기 지원을 위해 학계/시민/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2000년 탐사보고 및 숲살리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녹지축 보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지역별로 매달 정기적인 상설 숲체험하기를 운영하고, 공원 절대면적 확충 시민운동, 대안녹지 확보 시도(옥상, 학교, 철로 등), 생태공원(소래 등) 건설, 생태연결로 가능성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들레'라는 어린이환경탐사단을 운영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친자연적인 삶의 방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인천지역을 단절하고 수도권에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제2의 시화호인 경인운하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파수꾼돼야

■ 21세기의 환경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고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하고, 각 부문별(금/갯벌/대기/토양 등) 전문적인 분야를 정부나 어느 기관보다 많은 자료를 구축한 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획력과 기반없이 현안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종래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운동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한 노인, 방과 후의 학생, 대학생 등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



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와 설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환경운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 우선 우리가 이 땅의 최후의 생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환경적인 삶을 영위하는지 즉,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생활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환경십계명' 등을 정해 지켜나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의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다른 지역(나라 곳곳)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실천하는 파수꾼과 지킴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환경관련기사들 중 긍정적인 기사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었다며 올해는 미담기사가 사회면을 가득 메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내 지식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 한사람의 몫이 아닐 것이다. 21세기의 시작인 2001년에는 우리 모두가 '환경 파수꾼'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